

연금계좌 인출 순서



김현기 역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74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세액공제 연금저축+기타 추가 적립금+수익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종합 관리하여 연금으로 받는 것이 2층과 3층을 활용한 연금 설계입니다.

Q: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설계하여 인출할 경우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유와 그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연금계좌를 활용한 연금 수령의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시 반드시 인출 순서로 출금됩니다. 인출순서는 그림에서 1,2,3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인출하는 것이 가장 적게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1번 기타추가적립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또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출금해도 무방합니다.

2번 퇴직급여는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보다 먼저 인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의 연금소득세가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의 연금소득세보다 적어 먼저 출금합니다.

3번 세액공제연금저축과 수익부분은 고령일수록 세금(55~69세 5.5%, 70~79



세 4.4%, 80세 이상 3.3%)을 적게 냅니다. 제일 나중에 연금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세액공제연금저축, 기타추가적립금을 각각 1억 2000만원 씩 적립해 모두 3억 600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60세 이후 매달 100만원 씩 연금으로 수령(정액 확정기간형)할 때 인출순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와 세금은 첫째, 기타추가적립금은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기타추가적립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퇴직급여의 연금소득세는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70%입니다. 매달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셋째, 세액공제연금저축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때 나이 대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80세에 도달하면

3.3%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때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96만7000원 (100만원-3만3000원(3.3%))입니다.

넷째, 90세부터는 30년 연금 수령 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설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을 하고자 하면 '연금개시 신청(시)'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인지 실적배당형인지 등 운용하고 있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셋째, 연금 지급 방식을 확정기간 정액식, 중신형, 전후후박형, 등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넷째, 최초 연금 개시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연금 수령 주기가 월, 분기, 반기, 년 등 어느 것을 선택할지 등도 결정합니다. 각각의 내용이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금융회사 컨설턴트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한국거래소, 태국거래소와 상호협력 MOU

한국거래소(KRX)는 5일 태국거래소(SET)와 자본시장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거래소는 이번 MOU를 통해 자본시장과 관련한 상호 정보제공, 정보기술(IT) 인프라 개선, 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케사라 만추스리 태국거래소 이사장이 5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자본시장 협력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NH농협은행,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공감 캠페인

NH농협은행은 5일 서울 중구 하나로마트 서대문점에서 농협경제지주의 농축산물 전문 인터넷쇼핑몰인 '농협몰'과 상생협약식을 갖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국민공감 캠페인'을 올해 말까지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대훈 NH농협은행장(오른쪽)이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와 포즈를 취했다. /NH농협은행

차별화된 메뉴는 매출향상의 기본



이상현 역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

입춘이 지났지만 계속 이어지는 강추위는 좀 더 지속될 모양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찾아들게 될 즈음 여러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신메뉴를 개발하여 출시 준비를 서두른다.

하지만 근 몇년간 선보여진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차별성 없는 유사한 메뉴 출시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렇다면 본사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비자 관점에서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상품을 보는 시각은 기업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상품 선택방식을 아는 것은 신메뉴를, 포함한 메뉴 전략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망한 신메뉴가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메뉴

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공하는 메뉴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제까지 없었던 차별화된 새로운 인정한 메뉴이어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기준은 본부가 소비자의 가심비 만족을 위해 무엇을 하면 되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새로운 메뉴개발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메뉴)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상품차별화전략은 자사의 상품을 경쟁상품(메뉴)과 구별되도록 하여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경지를 구축함으로써 고정 고객의 이탈과 신규 고객의 영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연계성이 있도록 계획적이어야 한다. 전혀 동떨어진 상품(메뉴)구성이 아닌 일관성이 있는 상품(메뉴)이어야 한다. 즉

본사가 소비자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컨셉과 이미지도 경영자원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셋째, 신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 자체의 내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사전 시장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메뉴 개발을 위한 기획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및 시장적인 가치를 재검토, 확인함으로써 시장 및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뉴와 맛(품질)과 가격의 수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의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처럼 저성장 경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각종 마이너스 지표는 자영업 시장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본사도 살고 가맹점들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메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코웨이 블루버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봉사활동

코웨이는 비즈니스 전문가 조직 '블루버드'가 경기 광명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했다고 5일 밝혔다. 코웨이 블루버드는 대졸 사회 초년생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전문가들로 2010년부터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전국에 약 4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블루버드 40여명은 아동센터 시설을 새 단장하고, 지역사회 내 소외된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 환경 개선도 나섰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예보 부사장에 김준기 이사 선임



예보보험공사는 5일 김준기 예보 이사(사진)를 신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1962년생인 김 신임 부사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IRPS대학원 GLI과정을 수료했다.

예보 홍보실장, 리스크관리2부 부장, 저축은행행정상무부장, 인사지원부장,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정보 △ 에너지수요관리과장 이경훈

◆외교부 ◇ 과장 △ 정책분석담당관 손창호 △ 정책공공외교담당관 정광수 △ 창조행정담당관 강유식 △ 재외공관담당관 장병원 △ 의견총괄담당관 이상민 △ 동북아과장

이상산 △ 동남아과장 권순현 △ 서남아태평양과장 위준석 △ 아세안협력과장 김해진 △ 북미2과장 김일범 △ 한미지위협정과장 장 원 △ 남미과장 박정오 △ 서유럽과장 윤지안 △ 아프리카과장 정현정 △ 인권사회과장 신희선 △ 국제안보과장 고상욱 △ 영사서비스과장 이원식 △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조재홍 △ 국제에너지안보과장 신석홍 △ 대북정책협력과장 박형철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조아름 ◇ 팀장 △ 동북아협력팀장 남 진 △ 공공외교총괄팀장 박유리 △ 기획총괄팀장 임원재 △ 다자경제기구팀장 전지선 △ 민족공동체협력팀장 백운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정보관리소장 이영미 ◆국가보훈처 ◇과장급 정보 △ 감사담당관 김남현 △ 복지운영과장 안주생 △ 보훈의료과장 홍경화 △ 제대군인정책과장 양홍준 △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과장 우동교 △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김강훈 △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김동현 △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김남영 △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박종덕 △ 경북남부보훈지청장 김대훈 △ 국립입실호국원장 윤영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정보 △사이버조사단 단장 권오상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정민수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주선태 △기획조정실 고객지원담당관 신재식 △소비자위해예방과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김성근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총괄대응팀장 김형준 △식품소비안전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정용의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 김현중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문은희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 김성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최지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기준규격팀장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이호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장 박인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 오정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중앙약품과장 박형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오호정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계과장 윤미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과장 최선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 이원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장 손경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김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 이종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 서수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옥기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김태영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최숙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정의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관리과장 이규식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양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관리과장 양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관리과장 양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관리과장 양창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통관리과장 양창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사업본부장 최희문 △ 회원본부장 강승룡

◆이주경제 △ 마케팅·사업 총괄과장 겸 동방성 편집국장 양규현

부음

▲ 최중열(전 한국일보 제작국 차장)씨 별세, 최지혜(지은·정옥·정원씨 부친상, 윤원실(매일경제 경제부 기자)·박철(전 한국일보 사업국 차장)·김태호(미국 렉스로스 유망팀 연구원)·백병일(코리아타임스 문화체육부 기자)씨 장인상 =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2-3010-2263. ▲ 문금덕씨 별세, 박영식(변호사·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문식진(주한미국대사관 상무관)·광식(전 동강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류선열(전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장)씨 장모상 = 4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6일 오전 11시, 062-220-3352~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재규
편집국장 이재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